

중소기업, 고기술 업종에서 성장

KDI, 수송기계 · 반도체 · 자동차 고성장 ... 섬유 · 석유는 낮아

기술수준이 높은 업종일수록 고성장 중소기업이 많고 특히 정보기술(IT), 수송기계, 반도체, 자동차의 고성장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개발연구원(KDI)가 발표한 <미시자료를 이용한 고성장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> 보고서에 따르면,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종사자 300명 이하의 5만87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수준별 고성장 중소기업 비율은 고기술 분야가 14.2%로 가장 높았고 중고기술 11.4%, 중저기술 9.6%, 저기술 7.7% 순으로 나타났다.

업종별로는 IT기기가 16.8%로 16개 업종 중 최고였으며 수송기계(자동차 제외) 14.7%, 반도체 14.4%, 자동차 14.0%, 전자부품 13.2%, 정밀기계 11.7% 등이 뒤를 이었다.

섬유 · 의복(6.8%), 종이제품 · 인쇄출판(7.4%), 비금속광물제품(7.8%), 1차금속제품(8.0%), 석유 · 석탄제품(8.2%) 등은 고성장 중소기업 비율이 10%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.

고성장 중소기업의 공통점은 생산성이 높고 기획 · 영업,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인적자원 구성의 고도화가 진전돼 있으며 연구개발과 수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규모의 증가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고성장 중소기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<화학저널 2005/12/15>